

■ 2018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선정 심의 총평

- 사 업 명 : 2018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아동·청소년)
- 회의일시 : 2019. 1. 30(수) 10:30~
- 회의장소 : 문학나눔 회의실

2018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에 보내온 도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도서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화, 동시, 청소년 소설, 청소년 시, 그림책, 창작 옛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과학 공상 소설을 비롯한 각 장르마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작품들이 나왔다. 역사와 인물을 소재로 다룬 작품도 그 시대와 대상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동시 부문이 여전히 식상한 소재와 표현 양식에 매여 있는 작품이 많다는 점은 아쉽다.

2차 문학나눔 어린이·청소년 책은 모두 526종이 접수되었고, 1차 심의에서 4개 분과에서 각각 35종씩 140종을 선정하였다. 2차 심의위원은 그 2차 심의 대상도서 140종을 윤독하고 상중하로 나눠서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70종을 선정하였고, 예비도서 7종을 순위를 매겨서 선정하였다.

각 위원이 각자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순부터 차례로 정렬한 다음에 같은 출판사에서 4종이 넘는 두 출판사 책에서 4종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배제하였다. 또 같은 작가 책이 두 권일 경우 두 책을 놓고 협의하여 한 권만 선정하였다. 동점 도서를 놓고 선정할 때 접수 종수의 비율에 따른 장르별 안배 문제와 더불어 신인작가의 첫 발간 작품, 지역 소재 출판사, 전년도 미지원 출판사를 고려하였다. 특히 140종에 대한 2차 심의는 1차 심의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려 뽑은 종수라는 점을 존중하여 더욱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사 중 몇 가지 논점이 나왔다. 만화가 몇 권 응모되었는데 분과에 따라 만화를 배제한 곳도 있고 선정한 분과도 있었다. 만화는 한국만화박물관이나 한국만화연상진흥원을 비롯한 만화 관련 쪽에서 별도 공모나 지원제도가 있으니 장르별 안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림책은 그림은 참 우수하나 텍스트가 거의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되었다. 문학나눔이니 그래서 글이 있어야 하고, 글의 문학성을 중심으로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다음부터는 그림책 분야를 만들어서 그림책만 놓고 선정하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동화나 동시에서 생존하지 않는 작가 작품은 배제하였으므로 옛이야기를 재화한 책은 빼기로 했다. 다만 재화라 하더라도 현저하게 창작성이 돋보이거나 온전히 새롭게 창작한 옛이야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수필 영역으로 가야 하는 책이나 어린이 책을 성인 수필 분

과로 보내기보다는 동화 장르에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또 끝으로 문학나눔 도서가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으로 보급되는 점을 조금 고려하기도 하였다. 또 두 출판사 책이 동점일 때는 가능한 작은 출판사나 지역 출판사. 작가가 처음 내는 책 등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번 심의 도서들은 전반적으로 동시 부문보다 동화 부문에서, 또 전통적인 동화 문법에 충실한 동화보다 우리 시대의 문제성을 탄탄한 구성력으로 조망한 청소년소설과 다양한 기법을 시도한 그림책 부문에서 돋보였다. 또한 그 부문에 젊은 작가군이 더 많이 분포해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편으로 아동문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심과 동심이 어우러지고 시적 형상화가 잘 이루어진 많은 동시집 출간과 문학적 성취를 이룬 순수 동화가 다양하게 창작되기를 기대해 보게 했다. 같은 인물 이야기나 역사를 다룬 동화가 동점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았던 시대나 사건을 다룬 책을 우선 선정한 경우도 있다.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들이 주관 측에 몇 가지를 제안하기로 하였다. 첫째는 다음부터는 그림책을 독립분과로 하기를 강력히 건의하였다. 그림책은 3살 어린이부터 80 노인까지 볼 수 있는 예술로 종수도 많으니 그림책 분과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인이 시, 소설, 수필, 평론이고 어린이·청소년이 하나도 있는데, 보다 합리적으로 하려면 어린이·청소년도 동화(청소년소설 포함), 동시(청소년시 포함) 수필이나 교양(수필, 역사, 인물, 지식정보, 희곡*학습 참고서는 제외)으로 나누어서 배분을 하면 훨씬 전문성을 살리기가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끝으로 문학나눔에 선정된 출판사는 작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인세를 사업 종료 한 달 안에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미리 공고문에 넣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앞으로 이 사업은 작가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한다.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심의위원 일동